

## “공합이 맞아야 맞는다”

### 차와 다구에도 공합이 있어요

‘정맛은 독배기’라는 말이 있다. 차와 다구에도 서로의 맛과 멋을 살려주는 ‘공합’이 있다. 보이차를 자사호에, 홍차를 도차호에 우려마시는 것은 차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주는 다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중국차 전문점 천재향(대표 이우정)의 티스머리에 박수연 점장(31)에게 백차, 화차, 대만 오롱차, 보이차에 각각 어울리는 다구와 간편 다법을 배워본다.

### ▷ 백차는 유리다관



백호은침, 백복단 등 찻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백차(白茶)는 우릴 때 차호 밑으로 가라앉으며 곳곳이 선다. 이러한 차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다관이다. 다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찻잎을 넣은 후 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중투법(中投法)으로 우리는 것이 좋으며 찻잎이 천천히 밀로 떨어지므로 5분 정도 기다리며 감상한다.



1. 유리다관에 뜨거운 물을 반쯤 붓는다.
2. 찻잎을 넣는다.
3. 찻잎 위로 뜨거운 물을 붓는다.
4. 백차는 다관 밑으로 떨어져 곳곳이 선 때, 공에차는 꽃이 다 피면 충분히 우려낸 것이므로 찻잔에 따른다.

### ▷ 화차는 개완배



자스민차 등을 비롯한 화차(花茶)는 푸향이 넓은 개완배(蓋碗)를 이용해 우리면 개완배 푸경으로 꽃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사기로만 들었던 개완배는 차의 향과 맛을 잘 흡수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화차를 우려마시는데 적합하다. 사용법은 간편하지만 열전도율이 높아 손을 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1. 뜨거운 물을 개완과 찻잔에 부어 예열시킨 후 따라 버린다.
2. 차를 개완에 넣고 뜨거운 물을 따른다.
3. 찻잎이 잘 우려나도록 개완을 잡고 좌우로 살짝 돌린다. 이때 개완 푸경을 이용해 거품을 살짝 걷어내도 된다.
4. 찻물이 우려나면 엄지와 중지로 잔의 입구를 잡고 검지로 뒷부분을 누른 후 차를 마신다. 손님에게 낼 때는 찻잔에 따른다.

### ▷ 대만 오롱차는 문향배



철관음이나 동정오롱 등과 같이 향기가 좋은 차는 문향배(聞香杯)를 사용하면 그 향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문향배는 대만에서 개발된 것으로, 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길쭉하게 생긴 잔을 말한다. 문향배에 담긴 차를 찻잔에 천천히 따르고 문향배를 손으로 감싸 진 뒤 향을 맡는다.



1. 다호(첫주전자)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다시 다배(찻잔)에 부어 예열시킨다.
2. 다호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린다.
3. 첫 번째 우린 물로 문향배에 예열시킨다.
4. 다시 다호에 물을 붓고 문향배에 담긴 첫 번째 우린 찻물을 다호 위에 부어준다.
5. 찻물이 우려나면 문향배에 차를 따르고 다배에 얹어 손님에게 낸다.

### ▷ 보이차는 자사호



자사호란 중국 강소성 의흥 지방에서 나는 독특한 향으로 만든 차호를 말한다. 자사호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공기가 잘 통하므로 차 맛을 뛰어나게 하고 향을 빼앗지 않으며 찻물을 고온으로 유지시켜준다. 보이차는 뜨거운 물로 우려야 제 맛이 나므로 끓이 빨리 식는 사기나 유리 재질의 다호 대신 자사호를 이용한다.



1. 뜨거운 물을 다호와 다배(속위), 다배에 부어 예열을 시킨 후 따라 버린다.
2. 찻잎을 다호에 넣고 뜨거운 물을 따른다. 찻잎이 충분히 적셔지면 찻물을 다배와 다배에 부어 차향이 스미도록 한다.
3. 다호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린다. 이때 첫 번째 우린 찻물은 다호 위에 부어준다.
4. 두 번째 우려낸 차를 거름망을 둔 다호에 부은 후 찻잔에 따른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짙은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 5. 보이차의 수송길-다마고도



다마고도를 따라 북경으로 가는 행렬.

중국인들은 흔히 길을 가리켜 ‘마로(馬路)’ 즉 말이 다니는 길이라고 한다. 하긴 옛날 교통수단은 모두 말을 이루어졌으니 그러한 단어도 나올 법도 하다. 보이차의 운송도 이러한 ‘말길’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보이차의 운송길이 보이차가 뜨자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

15년 전 운남대학 무치홍(木欒弘)

에 도착하는데, ‘보이관장다마도(普洱關藏茶馬大道)’라고 한다. 보이차의 무게가 왜 편당이 357g이고, 왜 한 통이 7개여야 하며 왜 12통을 한 대바구니에 담아야 하는지의 의문은 모두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티베트로 가는 보이차 운송 말은 사실 대부분 당나귀와 노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말보다 몸집을 작지만 체질이 강하고 거친 먹이를 잘 먹으며,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말, 당나귀, 노새(이) 말로 지칭할 수 있는 길은 60km라고 한다. 이에 대부분 60km마다 하나의 마역(馬驛)이 있다고 한다. 말 한 필이 부담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는 60kg이다. 즉 화물의 무게가 60kg을 넘지 않아야 비로소 하루 60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다.

### 북경으로 향하는 보이차 운송길 6개 발견

### 다마고도 재현하며 병차 무게 등 의문 풀려

교수 일행은 최초로 이 길을 답사했다. 아니 차라리 탐험이라 말해야 옳은 듯싶다. 그들이 답사한 길은 운남에서 출발해 티베트까지 가는 산길이었지만, 너무나 장엄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험악하기도 했다. 어느 산길은 폭수를 내놓아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한다. 이를조차 알던 이 길이 무치홍 교수에 의해 ‘다마고도(茶馬古道)’라 명명됐고, 불과 15년이란 짧은 세월 사이에 이젠 다마고도를 모르고선 차를 안다고 행세하기 어려운 정도로 유명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보이차 운송길 즉 다마고도는 6개가 있다고 한다. 이 길들은 대부분 청나라 때 보이차 상점들이 즐비한 이무(易武)에서 출발해 곤명(昆明)을 거쳐 북경으로 간다. 보이차를 조공하는 길을 가리켜 ‘보이관마도(普洱官馬大道)’라고 한다. 작년 중국운남공산당청년단은 120필의 말에 보이차를 가득 실어 이 길을 8개월간 걸어 북경에 도착했다. 실로 166년 만에 재현한 조공의 길이었다.

다마고도 중 가장 험한 길은 역시 티베트로 가는 길이다. 이 길 역시 이무에서 출발해 하관(下關)과 상그라(香格里拉)를 거쳐 티베트

이런 조건들을 모두 헤아려 만들어진 것이 보이차의 무게 즉 357g이다. 357g×7편이면 한 통이 2.5kg이 된다. 2.5kg씩 12통이면 한 대광주리가 되는데, 이것이 30kg으로 말의 양쪽에 대광주리 각각 하나씩을 실으면 정확히 60kg이 된다. 이것이 보이차의 무게가 왜 357g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예로부터 보이차는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됐다. 운남의 접경나라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주 대상국이었다. 보이차는 이 나라들을 거쳐 태국, 홍콩, 마카오까지 이르렀다. 작년 ‘다마고도 북경조공 만리길’의 성공은 많은 상인들에게 부를 안겨주었다. 이에 더 없이 좋은 돈 벌이를 놓칠 리 없는 상인들이 어느 길이든 어느 곳이든 보이차를 팔에 싣고 ‘다마고도의 재현’이라는 명분을 달고 상흔을 발하는 현상이 벌어졌 것이다.

금년만 해도 운남에서 3개의 각기 다른 다마고도의 재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티베트를 거쳐 이탈리아의 로마로, 복건(福建)에서 바다 건너 타이완으로 그리고 북경과 북한을 건너 한국으로 운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다마수도(茶馬水道)’라는 명칭도 이제 말지 않아 생길 것 같다. ■ 한서대학교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산오롱·외 40여종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년 新製品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향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변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의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삭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삭향 양초의 특징**

-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집니다.
-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약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③ 천연약삭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삭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삭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약삭향양초 1호(둔터대) 5.6cm × 27cm 연소시간 약 100시간
- 약삭향양초 2호(밀대) 4.6cm × 25cm 연소시간 약 40시간
- 약삭향양초 3호(둔터대) 3.4cm × 22.5cm 연소시간 약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cm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 ① 그늘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되면서 발광량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냄새, 그늘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도종발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 ⑥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하십시오.

-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연소시간 약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립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샘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향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차사로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컬러(183×235), 288페이지  
가격 : 24,000원  
저자 : 김경우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02)722-7777